

발행일/
1993년 8월 15일
발행인/한명숙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8-3
전화/269-5763~6

함께 가는 여성

1993
8
통권 72호



베를린장벽 한가운데 있는 부란덴부르크 문.
89년 11월 10일 수십만명의 독일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외치며 장벽을 허물어뜨렸었다.

- | | |
|---|--|
| 2 더불어 한걸음씩
무엇을 위한 소각장 건설인가? | 14~15 지역협의회 소식
'공동체사랑' 일구는 우리들의 땀방울! 햇살도 방긋 |
| 3 지방의회 방청기/양천구의회
우리들 세상지혜, 구의회로 모은다 | 16 회원이야기
추억을 주워보세요 한층 젊어집니다 |
| 4~7 특집/상업방송 이후 달라진 방송문화
채널은 늘어나고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 17 남편이야기/내 아내는 민우회 열성회원
가려진 얼굴 |
| 8~9 이렇게 생각한다/대전세계무역박람회
진정 '새로운 도약'으로 솟아오르길... | 18~19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
| 10~13 통일로 가는 길
'새로운 자화상' '자기자리 찾기'에
분주한 독일여성들 | 공급품목
20 알림마당 |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소각장 건설인가?



김은경
노원·도봉 지역협의회
운영위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다음에는
발생한 쓰레기중의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쓰레기를
소각이든 매립이든
처리해야 한다.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처리할 필요성은 절실한데, 실제로 매립할 땅은 구하기 어렵고 또한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할 때 그 대안은 소각장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집 주변이라 하여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것이라.

그러나 소각장만 지으면 쓰레기문제가 해결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소각장이 건설되면 '태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쓰레기 배출량이 늘게 되고 일단 건설된 소각로의 가동을 위해서는 잘타는 쓰레기(종이 등)를 계속 태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자원 재활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처리비용이 78%가 넘는 일본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율이 줄지 않고 재활용율이 4.5%에 불과한 이유를 국민들이 쓰레기문제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소각정책에서 찾고 있는 걸 볼 때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각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처리방법이다. 재활용에 비해 10배 정도의 비용이 들고, 발생자재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또한 소각장은 안전한 처리방법도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독성이 심하다는 다이옥신의 경우 처리방법뿐 아니라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설도 없는 실정이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술조차 없는 실정이다. 1,000명에 가까운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같은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무방비 상태로 운영하는 무신경함은 끔찍하게까지 느껴진다. 일본에서도 다이옥신 검출과 그로 인한 오염사태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서구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소각장 건설을 금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소각장 건설을 주장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첫째로 매립지 부족문제를 들고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대로 4조 5,000억을 들여 2001년까지 전국에 145기의 소각로를 건설한다해도 소각율은 겨우 27%에 불과할 뿐이다. 소각재를 포함해 전체 쓰레기의 80%는 여전히 매립해야 하는 것이다. 쓰레기 발생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소각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도 매립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아니다.

둘째로 그들은 에너지회수로를 주장하는데 쓰레기 소각열로 충당할 수 있는 지역의 난방 및 온수는 9%가 채 못 될 뿐더러 지역내 전도로를 파헤쳐 배관을 다시해야 하는 일에 부딪친다. 그러나 폐지를 재생하면 소각에 의한 열회수보다 5배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폴리에틸렌 용기를 재생하면 2배, 용기를 재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러므로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름은 소각장에 적당한 명칭이 아니다.

셋째로 깨끗한 처리방법이라는 주장은 설명할 필요도 못 느낀다. 온갖 중금속, 맹독성 물질,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합성물들이 악취나 해충에 비해 깨끗하다는 비교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이해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발생한 쓰레기중의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쓰레기를 소각이든 매립이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쓰레기문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처리방법의 우선순위이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은 소각장 건설에 305억, 재활용에 5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발생억제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당국은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쓰레기 정책을 찾기 위해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명분도 이점도 없는 소각장 건설을 위해 같은 논의만 되풀이하는 행정당국의 태도는 답답함을 넘어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우리들 세상지혜, 구의회로 모은다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 이후 참여회원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구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자료를 모으면서 7월 중에는 각 구별로 구의회 방청을 하였다.

보통 각 구마다 구의회의 행정조직 기구는 비슷하다. 대개 본회의 밑에 상임위원회가 4~5개로 운영위원회, 재무·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구로구의 경우 도시정비위원회가 더 있다), 시민보건위원회(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우리가 보기로 한 여성과 환경관련 내용은 시민보건위원회에 속해 있다. 본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통과시키는 의례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로 방청을 하려면 상임위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가 열리는 회의실은 보통 좁아서 상임위원들 외에 구청직원들로 꽂 차기 때문에 직접 방청하기는 힘들고 휴게실이나 다른 곳에서 모니터를 통해 보든가 목소리만 듣든가 해야 하는 고충이 따랐다.

「함께가는 여성」에서는 앞으로 구의회 방청기를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자치가 올바르게 서는데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의 활동이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라 자부하며, 이번 호에는 양천구의회 방청기를 실는다.

— 편집자

7월에는 추경예산을 위한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로 구정질의가 없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어느 의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라도 파악하려는 생각으로 7월 14일 4명의 회원들이 방청을 하였다.

의원들 뒷자리에 방청인들의 자리가 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구청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신문 기자들 그리고 우리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아래 의정모임)의 회원 4명이 모두 있었다. 우리가 앉아있는 게 신경쓰이는지 뒤를 훌쩍 돌아보거나 어디서 왔느냐고 관심을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 의원들이 신상발언 형식으로 질의를 했고 사안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이 나와서 “노력하겠다, 유감이다” 등으로 확실한 시정이나 의지도 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이었다. 회의도중에 멀리 떨어진 뒷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아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자는 의원도 있었다.

의장의 회의진행방식도 문제가 많았다.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진행하는가 하면 별 이유없이 휴회를 강행하려고 하여 동조하는 의원들과 불만을 품은 의원들간에 옥신각신 삿대질을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10분간의 휴회로 합의를 보고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10분, 30분이 지나고 의원들을 찾는 방송이 나간 후 한 40여분쯤 뒤 속개되더니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폐회하는 바람에 열심히 뒷이야기를 기다린 우리들은 너무 기가차서 말도 안나왔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을 느끼게 된 것만도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도봉구의회, 강동구의회 방청을 통해 본래의 의미는 커녕 형식적인 틀만을 갖췄다고 하기에 너무나 엉성한 지방자치의 현황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참여라는 소박한 목표를 가진 처음 활동목표가 이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 틀도 갖춰지지 않은 지방자치제의 현실적 조건을 보면서 〈의정모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이나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절감하지도 못하고 시작한 〈의정모임〉은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주민참여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

상반기의 내실화와 역량축적의 시기를 보낸 〈의정모임〉의 하반기 활동을 기대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의회방청을 민우회 회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꼭 권유하고 싶다. 단순한 ‘방청’이라는 활동으로부터 참여, 지원, 홍보활동의 기본적인 자료를 얻고, 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채널은 늘어나고 선택은 좁아지고

임 해 선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

5 공화국 출범 당시 언론 통제합조치에 따라 공·민영체제에서 복수공영체제(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로 개편된 방송구조는 그후 10년만인 90년 10월 31일 6공화국 정부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새 민영방송의 주채로(주) 태영을 선정하면서 상업방송시대로 접어든다. (주) 태영은 그후 1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91년말 서울방송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수도권을 시청대상지역으로 한 민영방송의 전파를 정식으로 발사한다.

정부 및 일부 학자들은 통신기술의 발전이나 산업계의 변화 그리고 방송계의 변화추이 등을 내세우며 상업방송의 출현을 지지하였으나 민영방송의 주채선정과정에 나뉘던 갖가지 의혹들(즉 사전내정설, 정치자금설, 모연론사 관련설 등)은 출현의 시기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로 하여금 거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제 선거와 총선, 대선 등을 앞둔 정치일정에서 방송사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방송인들의 의식이 깨우쳐감에 따라 정부는 더이상의 방송통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영방송을 새로이 설립하여 방송사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친정부적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상업방송의 출현을 통한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한 서울방송이 본격적인 전파를 발사한지 1년 반이 흘렀다.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에서는 TV의 주(主) 시청층인 주부들의 경우 상업방송을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업방송 출현이 방송구조의 발전적인 개편으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또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방송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3년 4월 20일부터 1개월간 진행되었고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방송 시청가능지역)에 거주하는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의 주부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주부와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텔레비전 시청량, 프로그램별 시청률과 프로그램 선호도, 시청이유 및 만족도, 그외에 채널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의 지, 기타 텔레비전 시청행태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TV시청량을 보면 총응답자 256명이 평일과 휴일에 TV를 시청하는 평균시청량은 각각 2시간 07분과 3시간 44분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들의 평균시청량은 1시간 31분으로



독과점체제를 누리며 인이함에 빠져있던 방송계에 경쟁의 종소리를 울리며 본격적인 공민영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SBS, 상업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 사실이다.

나타나 일반적인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다.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시청량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 연령에 따른 평균 시청량		
취학전 1시간 39분 (63명)	국민학생 1시간 29분 (130명)	중학생이상 1시간 26분 (45명)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취학전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시간 시청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연령차이에 따른 시청량의 차이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자녀들이 계획적으로 시청하도록 지도하는 경우는 총 213명의 응답자중 70.4%인 150명. 자녀의 TV 시청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는 6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9.6%를 차지하였다.

채널의 인기도를 보면 응답자 261명중 157명이 문화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한다고 대답했고, 78명이 서울방송을 그리고 나머지 26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프로그램의 선택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오락성보다는 유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조되어야 할 측면	
유익성 87%(213명)	오락성 13%(32명)

다음으로 서울방송의 출현이전과 이후의 프로그램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45%, 불거리가 많아졌다는 응답 역시 42.2%로 나타나 채널 증가로 인해 프로그램의 선택폭이 확대되었음을 반영하

었다.

서울방송 출현이전과 이후 불만한 프로그램		
변화없음 45% (115명)	증가됨 42.2% (108명)	감소됨 12.8% (33)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인지결과는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프로그램으로 드라마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미디, 영화, 오락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차례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감소되었다고 지적한 프로그램은 교양, 어린이, 학생퀴즈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청률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오락성 프로그램이 증가된 반면 교양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와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아침시간대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주부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응답자의 17.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정작 주부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침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그저그렇다 55.9%	불만족 26.3%	만족 17.8%

위의 문항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소재의 빈곤성을 꼽는다. 이는 구태의연한 소재로 주제의식마저 불명확하고, 피상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작,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주부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주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행자의 발언에 나타나는 그릇된 여성관이 많이 지적되었고 이외에도 아침드라마의 저급성이 지적되었다. 이는 아침시간 주부들이 실타래영기듯 복잡한 애정관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보다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짜임새있게 전달해줄 수 있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롭고 유익한 소재로 전문진행자가 올바른 의식을 갖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방송이 준 긍정적인 면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신설된 점을 꼽은 응답자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주부대상 프로그램중 유익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채널은 한국방송공사라고 응답한 주부는 110명으로 총응답자의 64.3%였다. 한편 오락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채널로 서울방송을 꼽은 주부가 70.8%에 달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서 여성문제에 신선한 시각으로 접

근을 시도했던 토요일 오전의 '생방송 여성'은 같은 시간대의 타채널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 호응도가 낮았다. 응답자들의 68.1%가 여성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기대한다고 대답한 것과는 무관하게 '생방송 여성'의 호응도가 낮다는 점은 주부들의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TV프로그램의 유익성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흥미를 유발하는 오락성 강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생방송 여성'과 동시간대에 문화방송에서 방송했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여론광장'과 서울방송의 '행복찾기'는 각각 정보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으로서 나름대로 주부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행복찾기'는 서민의 생활주변소재를 다룸으로써 공감폭을 넓히고 그로 인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의식적으로는 유익성을 강조, 실재는 오락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모순된 TV시청태도

드라마 부문에 관한 문항중 아침시간대의 드라마는 총응답자 235명 중 30.6%인 72명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에 분석된 문제점과는 대조적으로 상업방송의 영향으로 방송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주부가 58.8%였고 시청률 경쟁으로 오락화에 치중하여 질이 저하되었다는 부정적 의견은 41.2%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중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종류로는 전체응답자의 223명중 168명(75.3%)이 만화영화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은 만화영화 방영시간이 제일 많은 서울방송으로 나타났다. (총응답자의 47%) 정확한 판단력이 정립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시청률에만 치중하여 지나치게 만화영화 방영시간량을 늘린다는 것은 공익을 우선해야 할 전파매체의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만화영화가 어린이대상 시간대를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화영화, 그중에서도 특히 수입만화영화의 폐해는 많은 주부응답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만화영화가 어린이에게 미치게 되는 정서적 악영향에는 폭력, 허구 또는 의실적 내용이나 장면 그리고 비속어 사용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부들은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의 비속어 남발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도 다른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인 진행자의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을
만화영화 방영시간이 가장 많은
서울방송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의 47%)



자질문제가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서울방송 출현, 시청률경쟁이 낳은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상업방송의 등장으로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부문의 프로골프, 당구, 농구 및 레슬링 프로그램 등이 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인 경기종목 및 경기내용은 신선한 볼거리로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국민정서와 거리감이 있고 계층간에 위화감을 자아낼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대다수였으며, 특히 쇼같은 미국 프로레슬링 경기는 자극적인 장면에 대한 무비판적 방송태도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그네뛰기, 윷놀이 등에 대하여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대중적인 스포츠 및 놀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송매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서울방송에서 뉴스와 영화의 편성시간대를 타채널과 차별화시킨 점에 있어서는 주부 응답자 약 80%의 호응을 얻고 있었다.

뉴스·영화의 차별편성에 대한 의견

긍정적	부정적
79.6% (168명)	20.4% (43명)

교양물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는 문화방송, 만화영화는 서울방송이라는 고정된 인식들에서 주부들은 서울방송 출현 이후 방송 전반적인 내용변화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청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리란 상업방송 출현의 의의는 찾기 힘들고, 지나치게 시청률경쟁으로 치달은 결과 우려되었던 대로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이 출범한 상업방송이 어느 정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방송체제의 주부대상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첫째 볼거리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느끼는 프로그램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침시간대의 드라마 재등장, 어린이 시간대에 만화영화 집중편성,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소개 등 대부분 프로그램의 오락화현상이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 주부대상 프로그램은 주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로 시청률에 치중하여 주부를 회화화시키거나 무비판적 소비자로서 인식, 경품세례방법 등으로 무분별하게 소비를 조장시키는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함으로써 저급한 오락프로그램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부대상 프로그램들은 '주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진행자의 발언에 나타나는 그릇된 여성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방송의 등장 이후 새롭게 선보인 프로골프, 당구, 농구 및 레슬링 등 스포츠 프로그램은 신선한 볼거리라기 보다는 국민정서와 거리감이 있고 계층간에 위화감을 자아낼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불거리는 많아졌으나 정말 불안해서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유익성과 오락성이 조화된 프로그램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그나마 기존의 프로그램들마저 오락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설문대상 주부들의 17.8%만이 만족한다고 하니,
 TV프로그램은 이미 시청자의 손을 떠나 제작진의 소유가 된 듯하다.
 다양한 시청자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간신히 고민해낸 것이
 '또 하나의 상업방송'이라니 '산넘어 산'은 이를 두고 한 말 같다.

있다.

셋째 상업방송의 출현으로 기존의 교양부문의 프로그램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이 오락성 짙은 프로그램에 밀려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그 설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업방송만이 문제해결은 아니다 채널별 특성으로 국민적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넷째 주부 및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질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전문 진행자의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연예인의 개인적인 인기로 의존하여 시청률을 높이는데 급급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주부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에 얽매인 채 주부의 건강한 사고 및 의식개발을 위협하고 낡은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다섯째 여전히 시청자들은 방송의 유익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유익성과 오락성이 겸비된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우리방송의 현실에서는 이와 상당한 거리감을 느낀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방송구조 개편안은 공보처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보완작업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뿐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영방송이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역할수행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등에 업고 방송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는 공영방송의 개혁을 통해 건전방송 문화를 창조한다는 방향으로 방송정책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그 대표적 방송구조 개편안으로 한국방송공사 채널의 분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KBS 제2텔레비전을 상업방송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안이다. 또 하나의 상업방송이 출현한다고 해서 곧 시청자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송내용을 담아



SBS 주일드라마 '산다는 것은', 서울방송이 뉴스와 영화의 편성시간대를 타 채널과 차별화시킨 점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80%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의의 경쟁이라기 보다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한 데서 결과되는 질적 저하를 우려케 하고 있다.

낼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시청자는 각 채널마다 그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공영방송 채널을 분리하여 상업방송 채널을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이 과연 다양한 분야의 방송내용을 시청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일까.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적 지지기반이 허약하고 방만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는 자체적으로 경영혁신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로 공영방송 본연의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독특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채널로 우뚝 서서 시청률 경쟁에 쫓기기 보다는 시청자를 이끄는 자신에 찬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불과 1년 남짓기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상업방송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방송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된다는 이유로 현실을 도외시킨 채 방송구조 개편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우리의 방송문화가 심각하게 퇴보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방송전파의 소유주는 국민이다. 국민은 시청자로서 좋은 방송, 보고 싶은 방송 그리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방송을 원하고 있다. 

진정 '새로운 도약'으로 솟아오르길...

88 서울올림픽만큼이나 뒷말 많고 요란스러운 대전세계무역박람회(아래 엑스포)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세계 108개국과 30개국의 국제기구가 함께 참가하여 역대 엑스포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대전엑스포는 금세기 마지막 대회란 점에서 21세기 전체의 문명발달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의 화려함 뒤 우리 국민들이 떠안았던 경제불황과 위기가 엄청났듯이 이번 엑스포 역시 걱정스러운 눈길이 많다.

그동안 엑스포 조직위원회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들뜬 여름휴가 덕분에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왕 큰돈 들여 시작했으니 구경이나 잘하자'는 식이어서 엑스포가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눈요기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다.

우리 경제형편으로는 '남비' 외국기술의존도는 50%

그렇다면 무엇이 뜻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엑스포에 냉랭한 눈길을 보내게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은 무려 7,000여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이런 행사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엑스포가 결정된 것은 6공화국 때의 일로, 5공화국 때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대외과시용의 성격이 짙다. 우리 경제형편으로는 엄청난 '남비'요 '위기'라는 지적이 대부분인 것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그런 돈이 있으면 한창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쓰거나 외국기술을 앞지를 신소재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의 외

국의존도'는 심각하다. 외국기술의존도는 전체 시설투자비의 50%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엑스포를 개최하는 근본 취지가 '우리(개최국)의 기술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얼얼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술입국' '선진국' 운운하는 우리의 전도가 실로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참조> 즉 최첨단 현대기술이 망라, 전시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기술이 개발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무차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도 심지어 우리 생활이나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대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관의 아이맥스, 미래항공관의 서클비전, 금강관의 매직비전 등이 이런 종류에 속하는데 이 대부분의 영상기자재가 미국의 아이맥스, 캐나다의 아이맥스의 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매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지나친 볼거리 경쟁이라는 지적이 높은 데다 영상시스템에 전체 소요경

정 대 은 「함께가는 여성」 편집위원

비의 25%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지나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비싼 장난감을 사준 격이 되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에서도 실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7월말 기준 예약인원 20만명에 불과할 뿐이어서 자칫 '집안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세방과 대한여행사 등은 일본항공(JAL)과 일본에서 최대규모인 JIB 여행사와 맺은 후쿠오카발 대전엑스포 2박 3일 프로그램을 엔화 3만

EXPO 수입 승인 현황

전시관	참여업체·기관	수입금액(단위 만원)
미래항공관	대한항공	37억3040
우주탐험관	삼성그룹	124억7104
테크노피아관	럭키금성	29억3381
전기에너지관	한전	9억6900
자기부상열차관	현대	23억7520
변영관	KOTRA	1452
시·도관	14개 시·도	13억8584
자연생명관	한국담배인삼공사	3308
한국IBM	한국IBM	4641
도약관	데이콤, 동아식품, 금강제화 등	8억9929
정보통신관	한국통신	165
재생조형관	조직위	6억6880
창의관	선경그룹	3억7563
지구관	쌍용	35억6844
자동차관	기아	42억2288
주거환경관	대한주택공사	6억7168
자원활용관	상공자원부	3억9974
대전관	대전직할시	1억9572
한빛탑	한화그룹	5059
조계문화관	조계공사	3억3484
소재관	포철	13억7313
롯데환타지월드	롯데	49억1356
인간과 과학관	대우	26억6086

5,000엔(우리 돈으로 약 25만 9,000원)에 덤핑계약했다고 한다. 현재 한·일간 왕복항공료가 대한항공기준 후쿠오카에서는 214달러(약 17만원)임을 고려할 때 내국인 관람객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덤핑인 것이다.

단순한 불거리경쟁, 낮은 관광수입 '집안잔치'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같은 문제점들은 정부의 일방적 대외유치 및 관광홍보에 몰려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그러나 이미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왔다.

그렇다면 이왕에 열린 엑스포, 어떻게 대처해야 최선일까?

우선은 주어진 의식으로 바라보자. 선진국들이 상업적 목적을 앞세워 내놓은 화려한 눈요깃감에 감탄만 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현대 선진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우리가 서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주력해 나가야 할 분야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면서 돌아본다면 이 행사가 낭비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으리라. 우리 국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는 특히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다. 경부고속전철의 수주와 관련해 독일은 고속전철이체(ECE)를, 프랑스는 테제베(TGB)를 전시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갖춰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두번째로 '최첨단'에만 이끌려 다니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 과거의 문화유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에 열리는 1,300회의 문화행사 중에는 평소엔 보기 힘든 몽골, 이집트, 체코, 불가리아 등의 소수민족국가 지닌 국보급 문화재의 전시가 있을 예정이라 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14개 시·도관도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내용으로 하면서 14억원에 이르는 기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한 점이 아쉽지만 말이다.

또 환경운동에 주력해 온 우리 민우회원들에게는 자원활용관을 둘러보는

것은 필수코스일 것이다. 이곳에서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은 물론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막는 최첨단기술과 자원 재활용법이 선보인다. 자원활용관에서는 한번 쓴 허드렛 물로 다시 쓰는 중수도 시

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이용될 수도 있으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람객들은 재활용 온실에서 '엑스포 비료'라고 쓰인 작은 기념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전날 자신들이 버린 음식찌꺼기를 발효시켜 재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관에서는 환경문제와 재활용에 민감한 나라답게 각종 자원 재활용장치와 태양열을 이용한 미래형 에너지기술을 볼 수 있다.

대규모 과학교육장으로 활용, 반드시 기술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워니워니해도 이번 엑스포의 주인공들은 청소년일 것이다. 마침 여름방학까지 겹쳐 8월 관람은 학생에게 양보하자는 운동이 나올 정도로 엑스포가 주는 기대효과가 높다. 이는 아마 엑스포가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학정신을 심어줘 우리의 과학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체 관람객의 50% 정도가 학생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여기에 맞춘 전시내용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과학광장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만든 이동형 인공지능 로봇이 안내 팸플릿을 나눠 주고, 테크노피아관에서는 4대의 로봇이 사물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주탐험관에 가면 과학위성 '우리별 2호'가 820km 상공에서 찍어



홍콩의 여학생연구소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입력된 모델의 모습이 컴퓨터에서 보내온 배경과 합쳐져 오른쪽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다.

보내온 한반도의 컬러사진을 받아볼 수 있고 복원된 고대 로켓인 '신기전'도 전시되어 있다. 또 옛 소련의 우주정거장 미르와 미국의 우주왕복선 앰버서더의 실물모형은 직접 올라타 우주인의 기분을 맛볼 수 있다고... 이런 전시물 외에도 세계 우주소년단대회, 국제항공대회, 로봇경연대회 등 세계 각국의 과학청소년들이 참가해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력을 겨루는 행사와 컴퓨터 영상제, 컴퓨터 음악제 등의 축제도 벌여진다.

이처럼 엑스포가 대규모 과학교육의 장으로 꾸며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전시물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어서 어린이들이 손으로 직접 조정해보며 탐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족 모두가 볼 문화행사로는 20여 개국의 전통예술 공연과 세계 복잔치 등이 있고 세계꼭예공연, 세계꼭두놀이 축제, 엑스포 영화제 등이 있다.

화려한 영상매체를 위주로 한 소개관이나 관람객이 많이 몰릴 아기관을 피해 볼 수 있으면 유익한 내용을 골라볼 곳이 이렇게 다양한 걸 보면 이번 엑스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다. 물론 규모와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지만, 기왕에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 문이니 많이 배우고 느끼자. 

베를린, 본, 포츠담, 라이프치히 등 구 동·서독의 도시를 돌면서 연방과 주 정부기관, 여성단체, 사회단체, 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구소, 농촌등을 방문하였다. 가는 곳마다 진지하게 '통일로 가는 길'을 닦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너무나도 빠른 통일과정, 연 1,200만 마르크(60조원 : 우리나라 정부 연 예산의 2배)에 이르는 엄청난 통일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복지의 축소(저소득층의 사회보장보조금의 25% 정도 삭감, 주택임대보증금과 장학금지급 예산의 25%정도 삭감, 실업수당의 삭감), 소득세 등의 세금인상조치 등이

그러나 또한편 새로운 건물을 짓고, 도로를 보수하며 통일사회에 적응해가기 위해 애쓰는 구동독의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면면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통일이 너무 빨랐다" (연방 여성청 소년부의 관료)

"통일로 제일 손해본 층은 저소득층이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포츠담대학의 여성연구자)

"동서독의 장점을 결합코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 뿐이다" (구동독 지역 여성단체 간부)

"구동독이 잃은 것은 비밀경찰뿐이다.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구동독 지역사회단체 실무자)

"서독은 생활, 경제, 법 등 모든 면에서 동독을 압도하고 있다. 동독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킬라> 여성자영업지원그룹 실무자)

"서독은 겸손해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동서독이 모두 변화해야 한다" (구동독의 한 목사)

"통일 당시에는 양독일의 좋은 점을 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여성연구자)

통일을 두고서 동독인과 서독인, 때로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지위에 따라서 조금씩 평가의 시선이 달랐다. 그러나 몇가지 공통점은 있다.

통일이 너무 빨랐다는 점, 눈에 안보이는 구동서독간의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점, 통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이다.

분단하에서도 구 동·서독은 서로의 신문과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제한적이지만 서로간의 친지방문도 허용된 지 오래였다. 88년 초까지 구동독인들 중 서베를린, 그리고 서독지역을 여행한 사람이 7백만여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정보교환과 상호방문이 폭넓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사람들은

'새로운 자화상' '자기자리찾기'에 분주한 독일여성들

윤 정 숙 사무직여성부장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독일, 조국은 하나'를 외치며 89년 11월 10일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지 1년이 지난 1990년 10월 3일 분단독일은 마침내 '통일'독일이 되었다.

40여년간 다른 이념, 체제, 가치를 지닌 채 공존했던 두 개의 독일이 어떻게 하나의 독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통일은 독일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독일정부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점은 아직도 분단의 반쪽 하늘아래 서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궁금하게 다가올 뿐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독일 아데나워재단의 초청을 받고 이효재, 조형교수 등 여성계 6명과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독일을 방문한 윤정숙씨의 이야기를 실는다. — 편집자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구서독의 콜 수상은 90년 12월 새연방회의 선거에서 "1년내 동독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전 서독의 개인소득은 유럽 1위였으나 통일후 독일은 4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구동독인 중에는 "우리는 양배추밭을 원하지 않았다" (양배추는 콜수상의 별명)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독일의 수도)에 있는 여성박물관. (6/27)
여성작가들의 작품과 여성을 주제로한 사진·기록물 등을 전시하는 전용공간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이러한 여성박물관은 독일에 2~3곳 더 있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역사속의 여성의 일과 활동을 찾아내고 여성의 시각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본에 있는 '독일여성협의회' 건물 앞에서 (6/28)
현지 서독지역의 47개 여성단체가 가입해 있다.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독 5개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통일전에 동서독여성간의 세미나 프로그램을 가지며 상호교류에 노력하였다.

'마음 속에 그린' 통일과 '현실로 부딪친' 통일의 차이때문에 당혹해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 이후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들은 대로 소개를 하려 한다.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화상'을 잃어버린 구동독여성들

통일후 동독여성들은 직장에서 가정으로, 부업으로 밀려나고 있다.

구동독하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제공은 물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일체를 보장해 주고 책임을 졌다. 동독에서는 '일하는 여성'은 상식이고 보편적인 여성상이었다. 출산이나 육아휴가, 자녀수당에 서부터 충분한 수의 탁아소는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통일 직전인 89년, 동독의 여성취업율은 91.2%로 서독여성의 취업률 55%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었다. 그들의 월급은 가계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서독여성의 18%에 비하면 구동독여성의 경제력은 가계수입에서 남성과 대등한 문

을 담당해온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그들은 결혼, 가정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화상'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다. (하루아침이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출근하자마자 "내일부터는 그만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물론 구동독에서도 여성들이 경공업과 하위직에 편중되었고,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이 적지 않았으며 가사노동의 80%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92년 1월 여성실업률은 21.8%(남자는 12.6%)나 되었다. 구동독 전체실업자의 여성실업률 통계는 일자리를 뺀 여성들의 불안정함과 상실감을 그대로 짐작케 한다.

여성들중에서도 제일 먼저 편모(과부나 이혼녀 : 구동독 가정의 18%)가 그 다음에는 40세 이상의 중년층여성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 순서로 해고되었다. 구동독에서는 편모에 대한 취업과 사회보장이 어느 여성 집단보다도 잘 되어 있었는데, 통일후 그들은 우선적 해고대상의 자리로 밀려난 것이다.

수년 사이 7,000여개의 구동독기업

—기술, 생산력, 시장 등에서 뒤져온—들은 서독의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고 섬유, 화학 등 여성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다. 10대 후반의 젊은 미혼 인력은 구서독으로 가서 호텔,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업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다.

'계획과 보장'의 체제에서 이젠 '자유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일터를 빼앗긴 '동독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중의 위치는 구동독여성의 '일자리 지키기'에 힘겨움을 더해준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 동독, 그 '계획과 보장'의 체제에서 '자유와 경쟁'의 체제로 던져진 것이다. 그들은 장사를 하려 해도 돈이 없다. 은행대출은 만만치 않다. 개인자영의 경험도 없다. 가게 문은 어디가 좋은지, 무슨 물건을 팔아야 할 지, 세금과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 지 막막하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주와 노동자간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이 '계약'과 '거래'에 의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생소하기만 하다.

구동독 포츠담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실업 여성응답자 중 72%가 "일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자기 학력보다 낮은 일자리를 찾아 취직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구동독에 비해서 열악한 모성보호와 탁아시설 때문이기도 하다. 구동독의 여성정책의 핵심은 '모성보호'와 충분한 '탁아시설'이었다. 그러나 모성보호관련법들은 내년말까지 과도기법으로 적용되며, 95년부터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구동독여성들은 구연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구연방법이 적용되면 구동독에서의 26주 산전산후휴가는 14주로 되고, 양육휴가도 1년간 100%유급이던 것(아이가 셋이면 18개월 유급)이 4개월은 유급, 8개월은 무급으로 바뀌게 된다. 자녀간병휴가도 연 4주에서 5일로 줄게되고, 자녀교육수당 등도 줄게 된다.

이는 구동독여성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와 통일후 출산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동독의 '모성보호법' 효력 없어 구동독여성들 출산을 계속 감소

정부와 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는 실업자 구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위해서 1) 직업훈련사업을 확충하고 2) 임시취로사업(ABM)을 확대하여 실업인력을 구제하려고 한다.

실업자들은 노충에 등록을 하고 회사는 노충으로 인력요청을 한다. 고용이 되면 임금은 정부에서 주는데 대우는 정규직과 유사하다. 그러나 임시취로사업은 2년간의 한시적 사업이다. 현재 구동독여성 28만여명이 직업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역시 직업교육의 기회나 임시취로 사업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구동독에는 <아킬라이>라는 여성자영업자 상담기관이 있다. 지난해 초에 시작된 이 기관은 노동부와 베를린주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몇몇 여성들이 공동으로 구청의 여성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공모에 이 사업을 옹호해

왔던 것이다. 이 기관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 자영업을 해보려는 여성들에게 장소, 재원마련, 세금관계 등 일체의 경영방법을 상담해 주고 있다.

지난해 400여 명의 내담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30~45세의 도시 고학력 여성이다. 그 중 25명 정도가 옷가게, 식품점, 커피숍, 미장원 등의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89년 동독의 라이프찌히에서 민주화위원회 주도했던 젊은 목사부와 함께, 그들은 통일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그들은 동서독 모두가 함께 변화해서 통일을 완성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인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에게 마음의 고통과 불안감을 없애주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경영방법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 한다. 올해는 더 많은 내담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가보지 않은 길',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의 울타리를 앞장서 경험하게 되는 여성집단일 것이다.

실업의 경험이 있던 상담자들은 "통일을 1년 전에 알았다면 아마 이민을 갔을 것이다"라고 침통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몇차례 힘주어 반복하여서 방문일행들은 착잡한 심경이 되었다.

여성에 대한 고용과 사회보장이 잘 돼있던 구동독은 여성운동도 여성조직도 불모지였다.

여성운동과 여성학연구는 통일된 지금에 와서야 시작이었다.

본에 있는 <독일여성협의회>와 동독의 <자주여성연합>을 방문하였다. 독일여성협의회에는 구서독의 여성단체 47개로 구성되었고, 그 회원은 1,100만 명이다. 이들은 연1회 총회를 하는데 투표로 결정된 중요 정책사안은 국회로비 등을 통해 관철케 한다. 구서독은 수십년간 여성운동의 역사를 지닌 이 조직은 이미 탄탄한 기반과 자기방향

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단체는 물론, 여성문화·출판운동 등 다양하게 있다. 여성박물관, 정기독자 6만명을 가진 여성잡지사도 있다.

<아킬라이>상담소 경영만큼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88년부터 구동독여성을 서독으로 초청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고 서로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구동독 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지부사무실에는 구서독과 구동독의 여성 각각 1명씩이 상근한다. 이들은 구동독여성의 조직화를 위해 구동독의 시장, 거리, 식당 등에서 여성들을 만나 일대일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한다.

구동독에서는 여성조직이라고는 집권당인 SED(통일사회당)와 긴밀한 <

자유여성연맹) 뿐이었다. 이 조직은 구 동독여성의 3.40%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는데 주로 당과 여성의 고리가 되어서 당의 여성정책을 지원하므로 자주성과 독자성을 지닌 여성조직은 아니었다. 그러다 89년 12월 <자주여성연합>(Independent Women's League)이라는 자주적인 여성대중 조직이 결성되었다.

구동독에서 민주화운동이 폭발하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은 여성들간의 조직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각 지역에서 조직된 그룹 대표자와 개인 1,000여 여성이 모여서 출범한 이 단체에는 현재 생산직과 서비스직, 인텔리여성 등 44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구동독의 5개주에 대변인을 두고 있다.

통일후 새롭게 나타난 문제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들은 구동독여성이 누렸던 권리와 제도적 장점은 통일 이후에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할당제의 도입과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 낙태법개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체 실무자는 구서독이 구동독을 흡수한 것이며, 구서독의 '독일여성협의회'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운동의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교류나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일독일에는 연방정부와 16개의 주 정부(구서독 11개, 구동독 5개)에 여성청소년부가 있다. 이 부서는 여성과 가족, 직업, 건강, 성폭력 등 10개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연 2,500만마르크(125억원정도)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한다. 정부연방에서는 이 외에도 다른 부서들의 여성정책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마르크(2,000억원)를 배정하였다. 연방에는 4명의 여성장관이 있고 여자 주수상(지사)도 몇 명이 있다.

각 주, 시, 군, 구마다에도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어서 여성의 취업,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여성단체와의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구동독의 경우 여성단체도 거의 없었고 여성들이 스스로 싸우고 조직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한 여성 자신들의 차별이나 가부장제의 문제의식으로 자신들을 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지금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은 자신들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집행력에 대부분 의존, 수동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통일이후 특히 구동독지역에 새롭게 드러난 여성문제의 양상은 가정폭력과

동·서독의 다른 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의 독일'로 가기 위한 첩첩산중의 고개를 하나둘씩 힘겹게 넘는 것으로 보였다.

새로운 자화상을 만들어간다 힘들어도 "우린 해낼 수 있다"며

오랜 준비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맞은 빠른 통일 그리고 '비대칭'의 통일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어느 글에서처럼 "한쪽은 '청산과 동화'를 한쪽은 '수용과 강화'라는 분명히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다"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았다.



89년 11월에 세워진 이 연구소는 동독지역 여성 연구에 중요한 기관의 하나이다. 그동안 동독에서는 여성운동, 여성단체뿐 아니라 여성문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운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그 지역 여성들의 문제로 특히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를 하고 함께 토론하였다. 그들은 통일후 저소득층과 여성의 손해가 제일 많다고 한다.

성폭력이다. 통일후 사회제도, 가치관, 가정생활 등이 바뀌면서 고용과 모성보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여성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구동독에는 거의 없었던 쉼터(Shelter)나 낙태상담소도 늘고 있다. 작은 여성그룹들도 조직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정부,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등도 점차로 여성교육과 성폭력 문제 등에 많은 관심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 3년을 맞은 독일은 이제야 구

통일의 손해자 위치에 놓인 여성들, 이제야 자신들의 조직과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다다랐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새로운 자화상'을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길고 긴 '자기자리찾기'의 등정을 시작한 독일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단 세대의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맞을 것인지를 이야기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한다. 

‘공동체사랑’ 일구는 우리들의 땀방울! 햇살도 방긋

서대문 — 은평 지역협의회

8 월 2일 비가 내리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보파리 보파리 이삿짐을 챙기고 한쪽 손엔 우산, 한쪽 손엔 짐을 들고 이사를 갔다.

사무실 바닥을 극성을 좀 부리며 물 뿌리고 수세미로 닦고 아쉬운대로 사무실의 구색을 맞추어 나갔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실 집기는 기증도 받고 새로 구입도 했다. 이제 회원 여러분들의 잦은 발걸음만을 기대한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는 8월말부터 많은 사회교육 강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어린이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자녀 글쓰기 지도) 여름에 거칠어진 피부를 가꾸기 위한 메이크업, 많은 회원들의 아쉬움 속에(선생님 사정 때문에) 중단했던 손침교실, 감축이 좋아서 신나는 생활도자기 교실 등이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고민해오던 밀반찬사업도 앞으로는 열심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생협의 먹거리로만 밀반찬을 만들고 맛을 내기 위한 첨가제는 일체 사용을 하지 않는다.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새로 이사한 사무실의 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순 금 지역 운영위원

노원 — 도봉 지역협의회

6 기 민우여성학교의 모든 강좌는 종강을 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두들 한가지씩 음식을 해와 함께 먹으며 그동안 정이 들었다며 헤어지길 아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9월의 6기 민우여성학교, 특히 9월 6일에 시작하는 주부를 위한 여성학 강좌는 “나는 꼭 들어야 해” 라며 결혼생활의 땃힌(?)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에서는

강남 — 서초 지역협의회

5 월 체육대회가 없었더라면... 자화자찬 아전인수격으로 ‘참 잘했다’고 상반기 지역활동을 자평하던 우리지역 회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체육대회 참석을 저조’ (그나마 준비미비로 점심 굶은 가족이 생김)라는 걸림돌에 부딪쳤다.

우리 지역 행사에만 충실한 결과일까?(원인분석하다가 포기) 그러나 연초의 계획대로 매월 월례회, 운영위원회가 각각 빠짐없이 열렸고, 새 공동체가 늘었으며(잠원, 압구정, 대치 미도) 역점을 두었던 ‘지역 민우여성학교’가 성공적이어서 보람을 느꼈다. 우리 지역과 생협의 참 먹거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진 회원들의 협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로 이어질 지방의회, 쓰레기 문제에도 그 정의로운 뜻이 확대되어 좀 더 나은 세상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9월부터 시작될 〈수지침 강좌〉에서도 만남과 배움의 기쁨을 실컷 맛보았으면 합니다.

고 혜 경 지역 운영위원

도봉구 의회 방청을 하여 미흡하나마 구(區) 살림살이를 짐작해 보기도 하였다. 여전히 줄거나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의원도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하며 반기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여 다행스러웠다.

7월 20일에는 노원구 의회의 무소속 심현천 의원과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과 구의회에 대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뜻깊었다. 좋은 뜻을 펼치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많았으며 심의원은 매우 반가워하였다.

구의회 방청일지를 계속 작성해 나가는 한편 방청소감을 소식지에 내겠다는 차은주회원, 언제나 큰 소리로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조미숙회원, 아이의 수술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내용의 발제를 맡아주신 책임감 강한 유경희회원, 어린 세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참여하시는 김혜순회원, “마냥 뜬구름 잡는 일은 아니겠지”라며 각오를 다지는 최찬애회원 등등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진행될 줄 몰랐으며 서로를 대견해하는 〈바른 의정...〉. 지각도 결석도 거의 없는 이 열성주부들 덕분에 지방의회는 성큼 우리들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다.

김 연 순 지역 운영위원

강동 — 송파 지역협의회

지난 7월 월례회는 주택은행 사랑방에서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원과의 간담회로 이루어졌다. 많은 회원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고 강동-송파지역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내용이 풍부한 자리였다.

〈바른 위정을 지키는 여성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불참자에 대한 아무런 의장의 설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진행 중 밖에서 잡담하는 의원까지 있어 국민학교 학급회의도 이보다는 나을 듯 싶었다고 한다.

이번 월례회를 끝으로 강동-송파 지역협의회 93년도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역대표를 맡아오신 윤명화회원이 사퇴하고 그동안 부대표를 맡아오신 신혜숙회원이 대표로 선임되었다. 윤명화대표의 사퇴의 이유는 개인사정으로 대표를 위임하는 동안 서먹해져서 회원들과의 공백기를 메꾸기가 어려웠다고...

또한 운영위원들이 고덕 주공에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이 어려워 강동-송파지역협의회 위상에 맞는 지역활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신혜숙대표의 알뜰한 지도아래 8월휴가 잘 보내고 9월 이후 하반기 계획을 힘차게 수행하기로 하였다.

박진경 교육조직원 간사

구로 — 영등포 — 양천 — 안양 지역협의회

7월 6일에 목동 2단지 이종순씨대에서 서해관부회장님을 모시고 민우회 행사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는 상반기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민우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처음 참석한 한 회원은 "민우회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였다. 민우회 회원이라는 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듯 싶다.

오후의 평가작업은 자못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올해 교조부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지역은 회원가입수나 월례회 참여회원수, 공동체별 매출량 등에서 목표에 미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체육대회, 산지일손돕기, 통일마라톤대회 등 중앙행사에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민우여성학교 이후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 등은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다.

지역협의회 활성화는 결국 운영위원들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지역은 이사나 출산 등으로 활동을 쉬게 되는 회원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운영위원이 부족했다. 또한 운영위원들끼리의 결속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와 하반기에는 운영위원을 더 보강하기로 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하반기의 구체적 활동계획은 다음(8월 31일) 운영위원회 때 세우기로 하였다.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일해주었던 목동 7단지의 최혜선회원이 5년간 머무를 계획으로 8월초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떠났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환송회를 겸했는데 부지런히 중국 말도 익히고 지리도 익혀서 관광안내를 해주겠다고 해서 모두 중국가는 계를 놓으며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이성미 지역운영위원

7월 공동체별 매출순위입니다

순위	공동체(봉사자)		매출금액
1	동작4	사당대림A (남혜경)	1,245,225
2	관악1	낙성대 (윤옥주)	1,010,250
3	도봉19	방학신동아 (이경숙)	988,300
4	은평12	여성개발원	972,050
5	강동12	암사울산 (윤명희)	941,250
6	마포11	성산시영 (장연희)	881,650
7	서대문10	홍은유원 (이해은)	861,600
8	강남4	청담삼익 (권병임)	807,075
9	안양2	석수한신 (이순자)	784,650
10	강남7	대치쌍용 (이신자)	775,450
11	은평19	연신중학교 (박영미)	679,400
12	서대문12	민우회 (박진경)	675,150
13	강남14	압구정현대 (김경희)	648,075
14	구로1	고척우성 (장은미)	646,650

상 큰 바다 내음이 그리워지는 때다. 올 여름엔 또 어떤 사진들을 정리하게 될까? 어쩌다 남편에게서 늦을 것이라는 연락이 오면 나는 마음 편히(?)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두 아이들 앨범 정리를 하는 일이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고약한 성질 탓에 집안을 재빨리 치워놓고 아이들도 내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녁밥을 일찍 먹이고 얼르고, 달래서 간신히 잠을 재운다. 아이들 소리가 끊기고 주위가 조용해지면 사진 정리 작업을 위해 준비물을 챙긴다. 앨범, 정리 안 된 사진들, 색색 싸인펜, 메모지 등.

먼저 큰 아이 사진과 작은 아이 사진을 분류하고, 다시 사진 찍은 날짜 순으로 분류해 놓는다. 앨범에 먼저 대보고 배치가 어울린 듯 하면 메모지에다 삽화를 그리고 이야기 꺼리를 적는다. 다음에 앨범을 꺼내 볼 때 사진 찍을 당시의 상황이나 장소, 분위기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앨범 필름(얇은 겹질)을 떼고 조금전에 해 보았던 대로 사진을 배치하고 메모한 것을 적당한 곳에 놓고, 필름을 붙이고 마른 수건으로 잘 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한 끝에 큰 앨범이 7권, 둘째 아이 4권 그리고 작년 여름방학 때 경주 고적당사를 한 끝에 정리하고 이름 붙여 둔 '경주이야기' 2권, 남편이 취미로 찍어 둔 경치 사진첩 4권 등 종류별로 여러 권의 앨범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앨범들을 내 삶의 한 부분들인양 소중히 생각한다. 우리 부부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과 아이들 자람의 증거물이기도 하거니와 훗날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물 사진보다는 찾아 간 곳의 안내문이나 실물들, 주위의 자연환경을 많이 찍어 두었고 아이들 생일카드와 크리스마스 카드도 같이 끼워 두어 내용을 두고두고 읽어 보고 기억하도록 보관해 두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집 자랑거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추억을 주워보세요 한층 젊어집니다

나는 이 앨범들을 내 삶의 한 부분들인양 소중히 생각한다. 가끔 남편과 다툼 뒤 마음이 허전할 때나, 나만의 시간이 생길 때 아이들을 야단친 뒤의 아픈 마음을 달랠 때, 나는 조용히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앨범을 꺼내든다.
여기에는 나의 삶과 사랑이 숨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좀 더 깨끗하고도 안정되게 만드는 '추억'이 살아 움직인다. 나는 그 '추억'을 사랑한다.

장은미
구로-영등포지역 회원



가끔 남편과 다툼 뒤 마음이 허전할 때나, 다행히 아이들이 일찍 잠들어서 나만의 시간이 생길 때, 또 아이들을 야단친 뒤의 괴롭고 아픈 마음을 달랠 때 나는 조용히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앨범을 꺼내든다. 앨범속에서 예전의 남편 얼굴을 발견하고는 피식 웃어버리게 되고, 사진속의 아이들의 밝은 얼굴, 환한 웃음을 보며 야단친 것을 후회하고, 조금 야윈 얼굴을 발견하고서는 가슴저려 한다.

추억은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누가 말했단가. 아름다운 추억의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앨범을 덮을 때 쫓으면 내 마음이 한껏 가볍게 정화(淨化)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소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강한 느낌도...

아이들도 가끔씩 앨범을 꺼내 들고 자기들의 지금보다 더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 하는 모양이 보기 좋다.

사진속에서 친구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반가워하고, 친구가 준 예쁜 생일카드도 다시 소리내어 읽곤 한다. 크리스마스 카드의 내용을 보며 빨리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길 기대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행복해 보이는 건 단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때문만은 아니리라.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두 아이들과 공동작업으로 앨범정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큼 더 자라 버리면 각자 자기 앨범을 제 손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아, 훗날 너희가 너의 아이들의 앨범을 정리할 때 까지라도 엄마가 정리해 둔 앨범들을 잘 간직해 주기 바란다.

엄마품의 온기(溫氣)를 간직하듯이...



이사를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우리 식구가 지금 사는 집으로 옮겨온 지가 6년 가량 되었으니, 근래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해본지 꽤나 오래된 셈이다. 하지만 요즈음도 이사집 꾸리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주 이사 다니던 때의 여러가지로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사에 대한 나의 기억이 이렇게 힘든 것이고 보면, 그것에 대한 아내의 기억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친구들

역할에 대해 더이상 보낼 것도 별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삿날의 행동도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는 이사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맡겨버렸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시에는 자신의 새로운 집의 주소와 약도를 들고 그곳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이사로 인해 그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약도에 그려진 새집을 얼마나 빨리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집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직 많지 않다고.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화제에 자신이 진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자신의 진보된 의식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에 스스로 도취된 듯 했다. 자신이 받은 교육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진보된 페

동생에게 혼인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오빠는 자신이 동생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명되고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이른바 개화된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크게 생색을 낸다. 그러니까 이 글의 작가는, 혼인 약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고, 그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문명된 일에 참여한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과거든 현재든 필요한 경우에만 페미니스트로 행세하는 것은, 늘상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보다 더욱 편리한 일인 것 같다. 그것은 우선 손쉬운 일임에 틀림없고 거기에 자신이 속한 시대의 이해심있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자위까지 할 수 있으

가려진 얼굴

김영민 고혜정회원의 남편

과 이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 나이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처럼 그만그만한 이유로 잦은 이사를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의 고통스러움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아울러 우리는 자신들의 아내가 이사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시달림을 받았겠는가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자신들이 집안의 이사일을 돕는다고 도와지만 그것이 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범의식을 느끼며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가다보니, 모두가 집안 일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는 데까지 갔다. 이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집안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참회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한 사람만은 우리와 의견이 달랐다. 그는 현재 자신의

미니스트이며, 자생적 페미니스트인가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의 주장의 결론은 자신의 가문의 전통을 생각한다면, 남녀의 역할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자신과 같은 이해력있는 인물이 나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각양각색의 페미니스트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문득 한 가지 소설을 떠올렸다. 지금으로부터 약 70 여년이나 이전에 쓰여진 소설을. 그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이른바 개화기라고 불리웠고, 적지않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개화된 의식을 자랑하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서 항상 나의 실소를 자아내는 것이 최찬식이라는 작가의 대표적 애정소설 『농라도』이다. 이 소설에는 여주인공의 보호자적인 오빠가, 자기 여동생의 신랑감을 임의로 선택한 후, 여



우리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페미니스트가 존재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페미니스트로 행세하는 편리함과 지적 허영 모두를 추구하는 페미니즘론자의 가려진 얼굴들이 보인다.

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편리함과 지적 허영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또다른 페미니즘론자의 가려진 얼굴이라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나 역시 알게 모르게 이런 유형의 자기 합리화와 지적 허영에 빠져 이 글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선 반성해볼 일이다.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7월 31일 현재, 생협에 참여하는 회원은 1,698명이고, 출자금은 53,739,600원입니다

새품목입니다

- 포마토마토(3,000원/800g)
제천에서 올라옵니다. 포장된 비닐캡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조심해서 뜯으신 후 공급편에 보내주세요.
- 거봉포도(7,000원/1kg)
금릉 김성순 장로님이 생산하십니다. 9월말까지 계속 공급됩니다.
- 채두(1,300원/300g)
제천에서 올라옵니다. 긴 콩깍지 모양이고 껍질째 먹습니다. 살짝 태쳐서 샐러드에도 넣고, 초고추장무침, 조림용, 볶음, 튀김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낭콩(1,000원/300g)
- 난황유(13,000원/60cc, 캡슐 120개))
난황유는 유정란의 노른자위에서 전통적 제조법으로 추출한 것으로 철분과 레시틴이 다량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레시틴은 체내에 들어와 비타민 B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며, 몸안의 혈행을 좋게 하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저혈압, 변비와 치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난황유를 캡슐에 넣어 뚜껑을 닫아 두고, 하루 3번 식사후에 1~2알씩 꾸준히 드시고,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 잡화꿀(32,000원/1도봉)
강원도 철원부근에서 채취한 꿀로 정농회원 이종택 님이 공급하십니다.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면 피로회복에 그만 이겠지요.
- 한살피 과채효소(10,000원/1.1리터)
지난번 공급하던 과채효소를 냉장보관과 따라먹기 좋게 긴병으로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 제천부추(1,000원/300g)
11월까지 계속 공급됩니다. 전, 김치, 찹쌀, 녹즙, 마늘 대용으로 적극 활용하세요.
- 8월 중순에 겨울에 드실 저장마늘을 집중 공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쌀값 조정합니다.
영농자금의 이자분만큼 3개월에 1번씩 가격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8월에 8kg당 250원을 올립니다.
(무농약백미, 현미, 오분도미 : 17,500 → 17,750원)
- 그동안 참기름, 들기름의 용량이 일정치 않아 '혹시 누군가 따라 먹고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와 협의하여 병뚜껑 바로 밑부분까지 꼭 채우고,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참기름 9,500원→10,500원, 들기름 4,700원→5,000원)
- 소래에서 생산되는 면류의 원료로 쓰이는 무농약 감자의 가격이 비싸 생산가를 올려서 불가피하게 소비자가격을 조정합니다.
(냉면 2,300원 → 2,500원)
쫄면, 칼국수는 생산가는 올랐지만 소비자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6월부터 공급바구니에 번호를 써넣고 주문장에도 공급된 것과 회수된 바구니의 번호를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된 바구니가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1개 3,900원)은 공동체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봉사자가 바뀔 때는 외상대금과 마찬가지로 바구니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아직까지 재출자금을 내지 않은 분은 빨리 내 주세요. 6월말까지 245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쌀과 몇몇 품목은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원들께 외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생협의 자금압박이 점점 가중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재출자금이야말로 생협의 자본금으로 생협활동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가꿔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 원활한 생협운영을 위해 외상대금은 1회분씩 1주일내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급 품 목

따르릉 521-2088~2089

1993년 7월 31일 현재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무 농 약 배 미	8kg	17,750	홍성
무 농 약 현 미	8kg	"	"
무 농 약 5분도미	8kg	"	홍성
일 반 미	8kg	13,500	홍성
보 리	2kg	2,800	피산, 산지가격에 따라
검 정 콩	1kg	5,200	조정되었습니다.
서 리 태	1kg	5,500	피산
환 콩	1kg	2,400	피산
참 콩	1kg	11,500	피산
수	1kg	2,800	피산
팔	1kg	2,800	피산
기 장 조	1kg	2,500	피산
차 조	1kg	4,000	피산
유 정 탄	30알	3,900	햇별을 받으며 운동한 닭이 품발
유 정 탄 부	10알	1,300	발효사료를 먹으며 낳은 달걀
두	1모	850	
콩 나 물	350g	600	
(통) 도라지	300g	1,300	
해 물 다시 다	150g	1,900	소래공장
멸 치 떡 찌	570g	1,500	추자도(소포장)
쌀 조 찌	1,200g	8,000	경주, 최영준
현 미 식 초	0.9l	1,500	영도식품
감 식 초	500ml	4,700	해남
해산물자연조미료	0.9l	5,800	한국미연(주)
멸 치 떡 찌	570g	1,500	마하담
냉 모 밀스프	0.9l	5,800	한국미연(주)
참 기 림	320ml	9,500	보은, 농민팔앗간
들 기 림	320ml	4,700	"
고 추 씨 기 림	300ml	4,700	피산선협
난 황 유	60cc, 병알120개	13,000	제천
복 은 계	150g	2,200	
죽 염 (1회)	500g	5,500	영덕, 민속죽염, 식용-양지죽염
죽 염 (9회)	125g	20,000	" 약용
과 은 소 금	3kg	1,200	임자도, 청정해역의 자연염
복 은 소 금	1kg	1,500	"
조 선 간 장	0.9l	2,700	생협
제 래 된 장	2kg	8,000	생협
고 추 장	반되방	7,000	
고 추 가 루	600g	11,000	고추장용도 있습니다
국산고구마전분	1kg	가격미정	삼원식품
황 울	100g	1,200	
두 중 차	100g	1,300	
물 계 손이 부라	100g	2,000	거창
감 자 부 라	150g	3,000	"
침 차	300g	1,700	"
참 김	1속	4,000	진도, 염산처리 안 한 것임
국 물 멸 치	500g	2,800	
다 시 다	500g	2,000	
복 어 포	5마리	4,500	
복 복 어	6마리	4,000	
호박엿 (사탕)	300g	1,000	울릉도
호박엿 (떡어리)	500g	2,000	"
미 역	200g	2,300	완도
표 고 비 섯	200g	6,000	공주
영 지 비 섯	300g	23,000	김포
햇 오 경 어	1속	11,000	울릉도
옥 수 수 차	1kg	1,000	보은 농민팔앗간
보 리 차	600g	1,000	보은 농민팔앗간
물 계 가 루	200g	1,800	보은 농민팔앗간
감 일 차	200g	6,500	광주한살림
복음물계가루	300g	2,500	보은 농민팔앗간
현 미 차	350g	1,500	생협
국산고구마당면	500g	3,000	대전 삼원식품
수 제 비	500g	2,000	소래
막 국 수	500g	2,300	
물 면	500g	2,300	
냉 면	500g	2,300	
달 국 수	600g	2,300	소래
도 토 리 록	330g	1,000	소래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정 포 록	330g	1,000	소래
무 침 가 렘	500g	7,000	" 발부제, 발색제 등 첨가물 없음
무침가·소세지	500g	5,500	"
감 곡 식 빵	450g	1,500	통밀, 현미, 보리, 콩, 쌀, 조
카 스 테 라	1개	1,500	"
시몬 케 이크	5개	1,500	"
명 태 어 록	350g	2,500	소래
명 탄 젓	500g	8,500	강원한살림
농 감 유 스	1.5l	3,300	경북농협조합
마늘 장 아 찌	500g	4,000	서대문 은평지협
올리 장 아 찌	1kg	8,500	군산, 삼학식품
영광 굴비 (중)	20마리	12,000	영광 협성포
아 카 시 아 꿀	2.4l	32,000	노성
한살피 과 채 효소	1.1l	10,000	한살피
감 화 꿀	2.4l	32,000	철원 이종택
과채효소(해남)	2.4l	22,000	해남 모듬살이농장
과채효소(홍성)	2.4l	18,000	홍성 갯골모임
더 덕 술	1.5l	10,000	홍성
미 숯 가 루	1kg	6,000	
말 기 생	1.2kg	10,000	민우회
현 미 차	350g	1,500	생협
벽 록 이	1kg	2,200	생협
호 박 락	1kg	3,000	"
상 치	200g	500	홍성
쪽 갓	200g	500	"
얼 무	800g	1,000	"
마 늘	1립	10,000	"
당 근	1kg	1,500	"
가 지	4개	1,300	"
호 박	1개	700	"
강 남 콩	300g	1,000	"
부 추	1단	1,300	"
양 과	4kg	3,000	해남
감 자	2kg	3,000	홍성
꽃 고 추	200g	500	생협
파 리 고 추	400g	1,000	"
근 대	300g	600	"
새 두	300g	1,300	제천
제 천 오 이	4개	1,300	"
쇠고기			씨알속산, 한우
불고기·장조림	600g	12,500	
양지·사태·분쇄	600g	12,500	
화 갈 비	1kg	16,500	
화 들 심	600g	13,500	
화 안 심	600g	14,000	
돼지고기			
불고기·장조림	600g	3,900	
돈까스·분쇄	600g	3,900	
삼 겹 살	600g	4,300	
갈비(L.A.식)	1kg	7,000	
통닭·토막닭	1kg이상	4,400	
삼 제 탕 닭	2마리	6,400	
꼬 마 토 마 토	800g	3,000	제천
거 봉 포 도	1kg	7,000	금릉, 김성준
갓	140g	6,800	포천농협, 연포장
갓 세 트	140g×2	13,600	"
천 연 생	500g	1,800	한국소유지 무임용 세제
세 미 램	500ml	4,500	" 목욕용 세제
세 제 산 물 세 트	4병	12,600	천연생 2, 세미람(500ml) 2
가 루 비 누	1kg	1,800	패식용유 재활용
고 세 비 누	4장	1,000	"
화 장 지	50m×10	2,200	부림제지, 우유패재활용
재 생 공 책 (거)	10권	2,000	아시아문화교육연구회 저학년용
재 생 공 책 (고)	10권	2,000	" 고학년용
재 생 공 책 (일)	10권	2,500	" 일반·중고생용
재 생 권 지 지		2,800	" 권지지, 봉투 세트
문 배 술	700ml	26,000	
안 풍 소 주	800ml	32,000	

지금 민우회는요!

★분당지역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도시로 이주한 회원들이 점차 늘고 생협 물품공급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우선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8월 27일 10시, 장소는 김현미씨 댁(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전영아파트 110-1104)입니다.

분당지역에 친구나 친지가 있으신 분들은 민우회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분당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에서는 8월 30일 10시 30분,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 및 〈지방자치와 여성〉에 대한 제2차 교육 실시전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중순경 각 구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원회〉

쓰레기문제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할 예정으로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과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쓰레기문제 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모니터위원회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은 TV 모니터 활동을 계속하면서 「공영방송지키기 시민모임」 연대활동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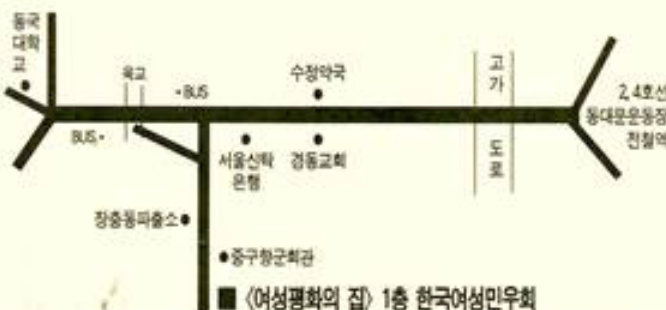
★문화위원회의 〈어머니노래반〉과 풍물패 〈단비〉는 한여름에도 쉬지 않고 땀흘리는 든든한 민우회의 기둥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모니터 모임〉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기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회원들이 나누어 시장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지일손돌기가 10월 24일 (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생산지인 충남 홍성으로 일손돌기에 가실 분들은 9월 20일까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여 주세요.

민우회 사무실이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9개 여성단체가 함께 있는 〈여성평화의 집〉 건물 1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화/269-5763~6 (약도 참조)



여성민우회 〈서대문-은평 지역협의회〉 사무실도 새롭게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화/731-7321)

8.15기념 '전범국 일본 규탄대회' 열려

지난 1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아래 정대협) 주최로 '전범국 일본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일본정부의 정신대문제에 관한 공식적 발표에 대하여 정대협의 입장발표와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생한 연설,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푸는 춤판 그리고 탑골공원까지의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일본정부는 지난 8월 4일 종군위안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보고서는 강제동원의 주체를 민간업자로 밝히고 일본 군수뇌부의 명령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안소의 수, 군인 수 등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보고서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수용한다'며 긍정적인 표시를 하였고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자주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을 반박하고 일본정부가 정신대문제를 시인하고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국회에 '전쟁범죄 규명 및 배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 종군위안부의 규모를 밝히고 명령자와 명령체계 등을 포함하여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대협은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과 정부 내에 조사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취소할 것과 적극적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해서 양국 정부, 민간단체 모두가 정신대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퇴야별축에서도 탑골공원까지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정대협은 앞으로도 계속 우회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신대문제를 무마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시위를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

'함께가는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편집실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여러가지 삶의 이야기나 나누고 싶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원고는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3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여성'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가는여성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민우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송료 포함 연회비 10,000원) 신문회원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온라인이나 지로를 통해 송금하신 후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발송해 주시면 매월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송금할 곳

상업은행 : 109-08-195935 홍영주

●지로창구 이용

가까운 은행 어디든지(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 지로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7519497) 전화로 신청하시면 곧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 325-7057, 7058